

국제대 돌계단과 샛길, 보수 아닌 완전 폐쇄 결정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국제】총무관리처 관리팀이 안전을 이유로 국제대학(국제대) 샛길과 돌계단을 폐쇄했다.

관리팀이 샛길 측각 폐지를 결정한 것은 지난 1학기, 우리학교 학생이 샛길을 이용하다 골절 사고를 겪어서다. 이전부터 샛길 초입에 놓인 돌계단은 가파른 경사로 위험성이 꾸준히 언급돼 왔다. 샛길 역시 경사와 조명 부재를 두고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위험성 큰 샛길 보행, 단계적 개선 필요/대학주보 1707호/2023.08.17.) 국제대 학생회 역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국제대 학우라면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대 학생회와 관리팀은 샛길 개선과 폐쇄를 놓고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국제대

학생회는 “개선이 아닌 폐쇄 결정에는 관리팀, 학생회,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공사를 통한 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개선이 어려운 이유에 국제대 학생회 방태웅(국제학 2019) 회장은 “우선 해당 길이 학교 부지가 아니고 산림보호법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이외에도 약한 지반 등 지형적 특성으로 공사 진행 시 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개선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신문 취재 결과 해당 길은 학교 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청 산림과는 “돌계단과 샛길이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1은 임야가 아닌 학교 용지로, 관공서 허락 없이 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대 샛길이 폐쇄됐음에도 일부 학생은 여전히 샛길을 이용 중이다. (사진=공예진 기자)

완전 폐쇄 공지 이후에도 우리학교 구성원 일부와 일반 시민들이 돌계단과 샛길을 통해 이동하는 모습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관리팀은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우리학교 구성원 이외의 사람도 이용하기

에 물리적 폐쇄는 불가능하다”며 “통행이 불편하도록 표지판을 세우는 방식으로나마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으로 길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를 방지할 수 없

는 데다가, 학교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은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에 구성원 대상으로나마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진(국제학 2020) 씨는 “가파른 경사와 높은 계단이 무섭기도 했지만, 국제대까지의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해당 경로를 종종 이용하곤 했다”며 “완전 폐쇄 결정이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이 우려되는 지금과 같은 조치보다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보수 후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관리팀은 “개선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예산 마련과 구성원과의 합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폐쇄 결정을 내린 것도 있다”고 말했다.

외대 제2외국어 의무이수제 완전 폐지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국제】2024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외국어대학(외대) 학사제도 ‘제2외국어 의무이수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재학생은 앞으로 전공 언어와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폐지 결정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미래발전위원회(미발위)에서 이뤄졌다. 미발위는 외대 교육과정과 외대 소속 학생의 학교생활 등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다.

제2외국어 의무이수제란 외대 학생이 전공 언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강의 3학점을 배분 이수 과목 개설 강좌 중 선택해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졸업 제도다. 기초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2외국어까지 합하면

전체 학사 과정에서 외대 학생은 모국어와 전공 언어, 영어까지 총 4개 언어 구사 능력이 요구돼 온 것이다.

제2외국어 의무이수제는 외대 학생의 교양과목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외대 소속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중국어, 한국어학과는 해당 제도를 2023학년도 부로 폐지한 바 있지만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학과는 여전히 해당 제도를 적용해 왔다.

외대 학생회는 일부 학과에만 적용됐던 제2외국어 의무이수제 폐지가 전 학과로 확대 추진된 배경

에 “단과대학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대 학생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23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외대 학생은 대체로 동의하는 목소리다. 이신희(스페인어학 2023) 씨는 해당 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며 “영어와 스페인어 전공과목으로 이미 제2외국어 실력이 충족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당장 본 전공도 벅찬데 다른 언어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2외국어 강좌가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있었

다. 제2외국어 수업으로 기초일본어 과목을 수강한 이진우(프랑스어학 2019) 씨는 제도 폐지 찬성에 가까운 입장으로 “대학은 가능하면 필수과목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사 가능 외국어가 하나 추가된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였다”며 “새 언어를 접하며 흥미가 생겼다”고 전했다.

한편 미발위 회의에서는 제2외국어 의무이수제 폐지 외에도 외대 내 융합 전공 개선, 열람실 개방 시간 연장, 오픈랩 개방, 홈페이지 개선, 4년 주기 교육 과정 전면 개편 등의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